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4호 【루계 제24547호】 주체103(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렴철성동지, 윤동현동지, 홍영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도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6월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혁명사적관을 새로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관의 내부를 잘 꾸리고 사적자료와 사적물전시도 잘했다고,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생산장성의 열쇠는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맏아들공장, 심장과도 같은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이 공장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것은 공장을 우리 나라 기계공장을 대표하는 본보기공장, 중추공장, 핵심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성능높은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이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환경도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을 빈터에서 새로 건설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을 명백히 구분하여 꾸리며 모든 생산건물은 물론 문화후생시설까지도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히 때벗이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강성원과 같은 편의봉사시설들은 물론 합숙, 탁아소와 유치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로동자들이 폭넓은 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잘 꾸려주어 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꾸리자면 설계와 시공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앙의 관록있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렴철성동지, 조경철동지, 윤동현동지, 홍영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 리병철동지와 조선인민군 항공군중장 장동운동지를 비롯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조국결사수호의 비상한 각오를 안고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부대의 육탄용사들과 비행사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늘초병들이 있는 비행장에만 오면 마치 고향집뜨락에 들어선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14명의 육탄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는 선군조선의 영용한 붉은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이 탄생한 고향부대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면서 부대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부대는 공화국영웅들을 비롯한 많은 위훈자들을 배출한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항공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의 항공군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보아주신 비행기를 돌아보시면서 사적비행기관리를 잘하고 만단의 출격태세를 갖추어놓음으로써 언제나 비행훈련의 맨 앞장에 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훈련실에 들리시여 비행사들이 진행하는 지상비행조종련습기재를 통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움의 날에 피를 적게 흘리자면 평시에 훈련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이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리착륙을 비롯한 비행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훈련을 더욱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는것과 함께 현대적인 비행조종련습기재를 리용한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부대안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지상에서의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자면 비행조종련습기재를 더 잘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몸소 가지고 오신 참고서적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비행사들의 침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군부대를 항공군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마음먹고 꾸리며 전투근무구역과 생활구역은 물론 요소요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군부대 비행사들과 육탄용사들의 안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갈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공연을 보면서 군부대 비행사들과 안해들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뜨겁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싸움준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군부대의 전체 군인들은 몸소 자기들의 부대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일단 출격명령이 내리면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위용을 떨치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와 무지하고 가증스러운 박근혜괴뢰역적패당을 이 세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말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몽골민주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위원장, 몽골인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자운동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푼씬뻬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뛰르끼예로동당 위원장,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선택당 위원장,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대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대리,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총비서,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 국제부장,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벌가리아사회주의당 민족리사회 부위원장,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미국로동자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쁠럭불가담학생청년조직 총서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명예위원장,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까자흐스딴, 까타르, 끼르기즈스딴, 우즈베끼스딴,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레소토, 말리, 베닌, 적도기네, 짐바브웨, 앙골라, 우간다, 에짚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꼴롬비아, 뻬루, 에꽈도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탁월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단마르크의 공산당 국제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장애인련합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장애인련합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 단장인 정개 부리사장이 1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에 길이 빛날 만년재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비약해가는 우리 조국땅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전반에 대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깊은 조예와 독창적인 사상리론, 비범한 창작실력을 지니시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성스러운 진군의 력사와 더불어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친작들은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향도하는 태양조선의 만년재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창조하시고 주체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 소설이 천만대중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철리를 간직하시고 문학예술창작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몸소 지으신 노래이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라고 조국의 이름을 찾아주던 혁명가요는 주체적인 시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은 기념비적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혁명연극 《3인1당》, 가무 《단심줄》 등을 창작하시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착취와 억압에서뿐아니라 미신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은 주체적인 혁명연극의 본보기작품으로 빛나고있다.

침략의 피수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력사의 교훈과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독립도 큰 나라들의 도움으로는 절대로 이룩할수 없다는 피의 절규를 새겨주는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는 인민대중에게 혁명의식을 심어주고 투쟁의 길로 떠밀어주었다.

항일의 나날 오가자에서 첫막을 올린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나라잃고 온갖 고통과 불행속에 쓰러져가던 수많은 꽃분이들의 가슴에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주며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조국과 고향에 대한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을 구가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에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혁명세계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연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경축대회》, 《승냥이》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백절불굴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세상이 열백번 뒤집힌다 해도 백두에서 추켜든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원쑤가 총을 내대면 대포로 맞서싸워야 한다는 혁명적원칙을 새겨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자주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한 세계적인 명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교령의 백설광야에서 초인간적인 의지로 《반일전가》를 한구절한구절 부르시여 유격대원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시였고 항일의 피어린 전구마다에서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굽이치는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비롯한 명작들을 창작하시여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찬란한 미래를 축원하는 명작들을 창작하시여 민족의 국보로 빛내주시였다.

주체68(1979)년 10월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으시고 읊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에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을 후손만대 길이 전해갈데 대한 심오한 사상이 천명되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향도의 태양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을 담아 친히 붓을 들어 지으신 《광명성찬가》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승장구할 래일을 축복한 불멸의 송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사색과 열정으로 몸소 수많은 우리 식 명곡, 명작의 본보기작품들을 창작하시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뛰여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10대의 어린시절에 고전적명작들인 동시 《초상화》, 《우리의 수령》, 연극 《보천보의 홰불》, 극문학 《패전장군의 말로》를 창작하시였다.

포연서린 전선길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주체42(1953)년 6월 1일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는 혁명의 수령을 길이 모시고 받들려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의 최고정화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세월의 흐름마저 멈춰드리고싶은 간절한 마음이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깃들어있는 동시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세월의 눈비를 막아주시며 따뜻이 품어 키워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이어나갈 굳은 맹세를 담으신 노래 《진달래》, 《나의 어머니》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세계가 어려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다.

동시 《우리 교실》, 시 《대동강의 해맞이》,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제일강산》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가장 열렬한 조국애, 참다운 조국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수령의 노래를 핵으로 하는 주체음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주체예술의 화원을 꽃피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명작, 명곡창조의 위대한 업적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시고 21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극악무도한 박근혜불망종들과 판가리결산을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보도

박근혜패당은 12일 김민석이라는 바보같은 괴뢰국방부 대변인을 공식석상에 내세워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까밝히고 공동조사를 다시 요구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정정당당한 주장에 대하여 그 무슨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이라고 걸고들며 시비질해댔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던 이자는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 《나라 아닌 나라》, 《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함부로 헐뜯어대다 못해 나중에는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발까지 꺼리낌없이 줴쳐댔다.

온 남녘땅을 어처구니없는 초상집으로 만든 치마두른 아낙네의 지시나 받고 벌치처럼 주절대는 김민석놈의 작태가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기 이를데 없지만 그것이 박근혜일당과 관련되여있는것만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고 히스테리적광기가 체질화되여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에 받쳐 헐뜯어댄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동족대결의 극치이다.

우리는 원래 사대와 매국을 일삼던탓에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란도질당하며 쇠퇴몰락하던 조선봉건왕조시대말기 국호를 그대로 본따 《대한민국》이라고 한 남조선을 단 한번도 주권국가의 체모를 갖춘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해본적이 없다.

자주국가의 기본징표인 군통수권마저 미국에 빼앗긴 한갖 식민지예속국에서 미국이 던져주는 미친소고기도 반가운것처럼 군말없이 받아먹어야 하고 미국이 재채기만 하여도 반드시 감기에 걸려 꼭같이 고열을 앓아야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다.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도 미국에 찾아가면 제 말이 아닌 미국말로 떠듬거리며 치마를 쳐들고 아양을 떨어야 충견으로, 노복으로 안길수 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처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조선을 제 넋도, 제모습도 없는 괴뢰들의 집단, 외세추종과 매국배족이 뼈속까지 슴배인 식민지노복의 무리라고 치부한지 오래다.

이런자들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견지하고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함부로 삿대질을 해댄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것이다.

박근혜일당은 저들의 이러한 처사가 얼마나 꼴불견스러운 추태이고 동족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범죄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땅에서 오래동안 연명해온탓으로 하여 21세기 10년대에 접어든 오늘까지도 남조선괴뢰들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초보적인 판단능력조차 마비되여버린것이다.

현실을 거꾸로 보는 괴뢰들로서는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표상마저 가질래야 가질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다나니 결국 우리더러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헐뜯어대는것도 서슴지 않는것이다.

진정한 인권은 참다운 사회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평범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세계의 찬탄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다.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는 참다운 도덕의 나라, 의리의 나라, 일심으로 뭉쳐진 부국강국의 나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고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황금만능이 판을 치는 남조선땅이 얼마나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이며 하나의 큰 인간오물장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것은 좋은 제도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제 부모형제처자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은 인간쓰레기들만이 몰려가고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에 그 무슨 《자유》가 있다면 이번 《세월》호참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애어린 학생들마저 물고기밥이 될 자유, 그것이 하도 억이 막혀 정당한 항변한마디 한것이 죄가 되여 감옥으로 끌려가는 자유, 미국놈을 하내비로 섬기며 《유신》독재자들에게 순종해야 살아갈수 있는 자유만이 있을뿐이다.

어렵게 살고있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못 본체 하고 숨져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뻥소니치는 자유만이 남조선땅에 배회할뿐이다.

이 모든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불모지, 자유불모지가 다름아닌 남조선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어 괴뢰패당은 우리가 그 무슨 《거짓말》만 한다고 헐뜯어대면서 그 실례로 우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호를 걸고들었다.

우리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공높이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들이 기운차게 돌고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적대국이고 괴뢰들의 상전인 미국의 《북아메리카우주공간사령부》와 로씨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공식 인정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더러운 개눈깔에는 진귀한 보석도 구린내나는 그것으로만 보인다더니 진정 그른데 없다.

자기 위업이 정당하고 선택한 진로가 정의로운 우리에게 있어서 허위나 거짓말이란 문구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로 생존하는 상습범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

온 겨레앞에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자고 확약해놓고도 서슴없이 상전의 장단에 맞추어 전쟁을 부르짖으며 도발광기에 들떠 돌아치고 애걸복걸하면서 비방중상중지를 공식 합의해놓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삐라살포와 같은 심리모략전에 매달리고있는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인가.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7. 7전산대란》, 《3. 20해킹사건》, 《GPS전파교란사건》, 《농협전산망마비사건》, 《무인기사건》, 《〈천안〉호침몰사건》 등 제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불상사를 《북소행》으로 몰아붙이며 아침저녁으로 모략과 날조를 꾸며대는 남조선괴뢰들에게나 거짓이 공기처럼 필요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상전의 그 무슨 습격기와 항공모함, 유도탄과 같은 하찮은 군사장비따위에 기대를 걸고 휜소리를 치는 몰골 역시 참으로 가긍스럽기 그지없다.

우리 군대는 미국놈들이 요란하게 광고하는 모든 첨단장비들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으로 아무때건 기회만 생기면 그 된맛을 톡톡히 보여주자는것이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결심이다.

우리는 이미 신성한 내 나라의 한부분인 남조선땅은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체질화되여 살고있는자들, 사대와 굴종이 골수에 밴 괴뢰들무리만은 단 한놈도 살아남게 해서는 안된다고 단정한지 오래다.

다시말하여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남조선땅에서 기생하고있는 박근혜역적패당들이라는것이다.

이러한 현실도 의식하지 못한채 우리 공화국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꺼리낌없이 줴쳐댄 망발에 대하여 특별히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곡절많은 민족분렬사에 이따위 망언이 울려나온적은 일찌기 없었다.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 리명박역도도 감히 우리에 대해 이처럼 험악한 악담까지는 내뱉지 못하였다.

결국 박근혜일당의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전거부이고 《흡수통일》야망의 로골적인 공개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선포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용납하지 못할 이 망언으로 초래될 후과는 이제 더는 만회할수도, 수습할수도 없게 되여있다.

남조선내부에서도 이번 망발을 줴친 천치같은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놈과 그 배후조종자들을 당장 해임철직시키고 당국이 공식 《부적절한 발언》, 《도가 넘는 험악한 표현》을 정정하여 《남북관계의 완전파국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면서 벌어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적능력도 없는 한갖 꼭두각시에 불과한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줴쳐댄 이 망발의 배후에 괴뢰군부깡패들이 있고 악질반공보수패당들이 있으며 박근혜가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박근혜일당은 외세추종과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초래된 총체적인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대참패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타산밑에 김민석이와 같은 밥통을 내세워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작정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대결광풍으로 이 땅을 첨예한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있는 박근혜패당이 또다시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을 묵과할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천하무도한 박근혜불망종들이 저지른 특대형도발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도발의 본거지인 서울타격명령을 내려달라.》는 격노한 보복함성이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타번지는 분노는 하늘에 치닿고있다.

우리 천만군민들과 온 겨레의 민심은 천하대역죄를 꺼리낌없이 저지른 박근혜일당을 이 땅에서 깡그리 쓸어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체제를 비난하는 특대형도발행위에 매달리는자들은 그 즉시 징벌해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되는 소멸대상이다.

《유신》의 후예 박근혜와 괴뢰군부불망종들이야말로 이 땅에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이고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놈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다.

박근혜일당은 저들이 줴쳐댄 망발이 얼마나 처절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것이다.

세계는 오래지 않아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결사보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어떤 정의의 판가리결전으로 남녘땅의 오물들을 씨도 없이 보기 좋게 청산해버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5월 13일

평 양

‖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적인 노래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대중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음악예술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어야 하며 노래소리높은 곳에서는 약동하는 생기와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 영웅적위훈이 창조되기마련이다.

우리 혁명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승리하여온 혁명이다. 그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언제나 천만의 심장을 쾅쾅 울리며 시대를 선도해온 혁명적인 노래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천교령의 백설광야에 높이 울렸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조선혁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노래는 유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준 진군가였다. 《반일전가》의 우렁찬 노래소리는 그대로 《결사전가》, 《총동원가》와 같은 수많은 혁명가요들로 끊임없이 이어져 승리의 개가로 높이 울려퍼졌으며 이 노래들과 더불어 우리 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승장구의 한길로만 전진해올수 있었다.

한편한편의 혁명적인 노래는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할수 있고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와 같은 노래들을 부르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거꾸러뜨리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고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비롯하여 혁명의 년대들마다 창작된 혁명적인 노래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당과 수령을 따라 주체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게 한 시대의 행진곡이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우리 당의 음악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자기 수령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령도자를 따라 이 세상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이 노래야말로 우리가 최악의 역경속에서 솟구쳐올라 사회주의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와 같은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놓고 이 땅우에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친 영웅적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혁명적인 노래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노래는 우리의 생활이고 힘이며 필승의 보검이다.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노래포성이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는것은 단순히 그 내용과 형식이 참신하기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모란봉악단의 노래들이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대표하고 이끌어나가는 행진곡, 진군나팔소리와도 같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오늘의 총진군을 승리에로 힘있게 추동하기때문이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전투장들마다에 울려퍼지는 혁명적인 노래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으며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불타는 소원》,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와 같은 노래들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며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는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 새겨져있는 참뜻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있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찬 진군가로, 시대의 행진곡으로 높이 울려퍼지고있기에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선군혁명대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리 강 철

첫 기록영화를 보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사는 사상사업을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사상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오신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35(1946)년 7월 하순 우리의 영화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새 조선의 첫 기록영화시사회를 진행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영사막으로는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장한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격동적인 화면들이 련이어 흘러갔다.

시사회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새 조국건설투쟁이 잘 안겨온다고, 특히 3.1인민봉기기념경축대회를 비롯한 정치행사화면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다는것을 누구나 깊이 느낄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5~6명의 인원으로 불과 몇달사이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기록영화를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치하를 받아안은 감격속에 한 일군이 수령님께 영화가 3.1인민봉기기념행사편과 5.1절기념행사편 그리고 평양시군중대회와 보통강개수공사, 공장, 기업소건설투쟁 등 여러편으로 갈라져있는것만큼 매 편에 각각 제목을 붙여 따로따로 돌렸으면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완성된 세가지 내용의 영화를 하나의 기록영화로 묶어서 내보내는것이 좋겠다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서너달동안에 벌어진 격동적인 사변들과 사실들을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체계성있게 보여주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교양할수 있다고, 또 일정한 주제밑에 내용을 꿰고 종합한 영화라야 무게있는 기록영화가 될수 있고 영화의 실효성도 높일수 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기록영화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번에 만든 기록영화들에 중요하게 강조되고있는 사상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신심과 희망에 넘쳐 새 조국건설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는것이라고, 그러므로 기록영화제목을 《우리의 건설》이라고 다는것이 좋겠다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영화예술인들속에서는 환희와 경탄의 웨침이 흘러나왔다. 영화의 사상주제는 물론 모든 화면의 내용들을 하나로 꿰여 표현할수 있는 그야말로 적중하고 명백한 제목, 소박하고도 뜻이 깊은 제목이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우리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 기대를 가질것이 아니라 자체로 영화제작사업앞에 가로놓인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 해방된 새 조선의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고무해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숭엄히 어려왔다. 그리고 기록영화에 담을 내용들도 환히 밝혀주시고 촬영기와 복사기, 필림을 비롯한 귀중한 영화기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주시던 그이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장을 꽉 틀어잡을수 있는 영화의 내용구성과 그에 따르는 제목까지 다 밝혀주시니 첫 기록영화에 대한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에 대하여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나온 첫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은 상영되자마자 온 나라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심장에 애국의 세찬 불길을 지폈으며 새 조국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 선 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캄보쟈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 뻰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페하

나는 생일 61돐을 맞는 국왕페하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대왕페하와 함께 몸소 마련하여주시고 가꾸어오신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5월 13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뛰르끼예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아르쓸란 하칸 옥찰 주조 뛰르끼예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뛰르끼예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책임일군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참관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김영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13일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참관하였다.

공장에 도착한 참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공장로동계급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로동자합숙이 현대적미감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합숙건설의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하루빨리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한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참관자들은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미학성이 보장된 멋쟁이건축물, 평범한 근로자들의 사랑의 궁전으로 전변된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홀과 복도의 벽색갈이 안온한것으로 선택되였으며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지고 전기난방화된 침실과 특색있게 설계된 목욕탕, 여러가지 공업품, 식료품들이 진렬되여있는 상점, 각종 도서들이 가득찬 도서실 등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특히 한번에 수백명의 식사를 보장할수 있는 식사실들과 쌀이는기계, 남새절단기, 전기볶음판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최신식인 주방설비들,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공원은 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전체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개화발전하여온 주체문학예술

조선예술의 국보 4대무용명작

우리의 무용예술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무용예술로 발전시켜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서 무용예술부문에서는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무용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용예술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생활의 보람을 안겨주는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이다.》

무용작품들인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사과풍년》, 《키춤》은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주체무용예술의 본보기명작들이다.

이 무용작품들은 우리 나라의 4대무용명작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조선의 무용예술을 상징하는 대표적명작으로 되고있다.

4대무용명작들은 그 주제가 새롭고 다양하면서도 민족성이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서정적인 춤가락들과 우아하고 고상한 률동들이 명곡의 선률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있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들이다.

무용 《눈이 내린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감명깊은 무용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눈내리는 고요한 밤 빨찌산이야기로 잠 못 드는 이 나라의 불밝은 창가마다에 소리없이 내리고 또 내리는 함박눈을 형상한 눈정들, 웅장화려한 평양의 야경을 집약화한 화폭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아름다운 념원을 심장깊이 새겨주고 보다 휘황찬란한 앞날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무용 《눈이 내린다》는 혁명적인 내용을 박력있고 긴장한 흐름으로 펼쳐나가면서도 녀대원이 눈보라를 헤치며 전진하는 률동, 사나운 백두의 눈갈기를 형상한 눈정들의 극성이 강한 률동과 뚜렷하고 특색있는 조형으로 하여 강렬한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색적인 정서로 일관된 명곡 《눈이 내린다》를 반주음악으로 하여 무용형상의 심오한 세계를 부각시킨다.

무용 《눈이 내린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무용예술리론이 훌륭히 구현된 기념비적명작으로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무용 《조국의 진달래》는 해방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살며 투쟁하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의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적락관주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국의 흙냄새를 온몸으로 맡으며 두손으로 한웅큼 흙을 모아 가슴에 꼭 안는 눈물겹고 감동적인 녀주인공의 춤형상은 노래 《조국의 진달래》와 혁명가요 《녀성해방가》의 선률과 조화되여 랑만적이면서도 활달한것이 특징이다.

무대미술의 여러 표현수단들이 민족적인 무용언어와 훌륭히 밀착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내용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부각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창작의 첫 시기부터 제목설정과 주인공의 형상문제, 전반적인 구도문제, 반주음악에 이르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치는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여 무용 《조국의 진달래》를 주체무용예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한 본보기작품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무용 《키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에 보낼 원호미를 정성껏 마련하는 마을처녀들의 근면한 로동생활과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형상하고있다.

무용은 우리 나라 농촌녀성들의 고유한 로동도구인 키를 리용함으로써 민족적정서를 더욱 뚜렷이 살리였으며 키를 돌리는 춤동작과 무대미술의 여러 형상수단들이 매우 특색있다.

작품은 달밝은 밤에 물방아로 찧은 쌀을 키질하는 마을처녀들의 단편적인 생활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훌륭히 창작된 무용 《키춤》은 민족적색채가 짙은 국보적인 무용명작으로 세계무대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무용 《사과풍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의 위대한 생활력을 사과풍년을 맞이한 협동농장처녀들의 창조적로동과 보람찬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과일풍년을 맞이한 기쁨과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려는 농장원처녀들의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넘친 로동생활모습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특히 사과따는 동작, 나무가지를 헤치는 동작, 딴 사과를 바구니에 넣는 동작, 어깨춤동작 등 생활적인 춤가락들을 위주로 하여 펼쳐지는 명랑한 률동의 세계는 참으로 인상깊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의 소재를 친히 골라주시였으며 무용형상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4대무용명작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날이 발전하여온 주체무용예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길이 전하며 조선예술의 국보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주체미술의 발전면모를 대표하는 조선화

조선화는 동양화의 일반적특징을 띠면서 고유한 민족회화형식의 훌륭한 특성을 뚜렷이 갖추고 오래전부터 발전하여왔다.

오늘날 조선화는 주체미술의 발전면모를 대표하는 얼굴로 되고있으며 우리 미술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과시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여 우리 식의 미술을 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조선화를 주체미술의 기본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토대하여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 주체미술의 전면적개화기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화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미술의 여러 종류와 형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미술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는 조선화를 기본으로 주체미술을 건설하고 발전시키신 불멸의 력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시대의 요구와 미술의 특성, 인류미술발전력사와 그 발전동향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화를 기본으로 우리 식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으며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조선화는 훌륭한 회화형식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하시면서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조선화화법의 기본특징은 함축하고 집중하는것이라고, 우리는 전통이 오래고 훌륭한 예술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켜야 민족적특성이 뚜렷한 우리 식의 미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미술창작에서 인민의 생활감정과 미적지향을 잘 반영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조선화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선화의 우수한 기법을 잘살려 현실을 그려놓으면 다른 회화형식의 작품보다도 눈에 띄우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보고 또 보아도 더 보고싶은 충동을 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화구도법의 예술적특성과 조선화의 특징적인 색묘법을 살리기 위한 문제, 명암을 집약화하는 문제, 우림, 몰골갈은 양상이 서로 다르고 생동한 표현을 낳는 여러가지 기법에 정통할데 대한 문제, 조선화의 필치를 잘 살릴데 대한 문제,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조선화를 그릴데 대한 문제, 조선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안료와 종이를 잘 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화를 기본으로 미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행복하고 자랑찬 생활과 영웅적투쟁을 주제로 한 화폭들, 벅찬 현실을 반영한 여러가지 주제의 조선화들이 수많이 창작될수 있었다.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창작을 발기하시고 종자를 주시였으며 창작과정을 여러차례에 걸쳐 세심히 지도하시여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완성시켜주신 현대풍경화의 본보기작품이다.

화폭에서 증산의 동음세찬 철의 기지의 하늘가를 물들이는 붉은 노을, 수많은 굴뚝들에서 타래쳐오르는 연기, 대동강의 물결우에도 비낀 붉은 노을은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의 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려는 그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전통적인 조선화기법들을 대담하면서도 훌륭하게 적용하여 현실반영의 진실성과 당시의 들끓는 시대정신을 잘 부각시킨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은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채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열린 국제미술전람회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조선화 《백두산의 해돋이》, 《항일의 혈전만리》, 《몸소 불타는 고지에 오르시여》를 비롯한 수많은 미술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하시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시대의 걸작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작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정녕 지구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자기의 독자적인 나라이름을 단 민족회화형식을 령도자의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밑에 훌륭하게 계승발전시킨 나라와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키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더욱 풍만해지는 주체미술의 대화원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의 영웅작곡가들 (3)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안정호의 창작활동을 더듬어

누구에게나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다.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기쁘거나 힘들 때마다 저도모르게 부르게 되는 노래, 뜻깊은 날들이나 한생을 총화하게 되는 마당에서 인생의 주제가처럼 선택하여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그런것일것이다.

지난 4월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작곡가들의 사진과 함께 당보에 소개된 수백편의 명곡제목들속에는 로력영웅이며 인민예술가인 안정호의 작품들도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는 이번에 172편의 창작곡과 함께 당보에 소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곡가들은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명곡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혁명적 작곡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창작에 앞서 예술가의 사색과 시선이 순간도 끊임없이 달리고달리는 곳은 다름아닌 인민의 넋과 마음이다. 당의 사상과 정책은 물론 자기 인민의 성격적특성과 시대적감정, 발전하는 사상정서적요구 등과 같은 무수한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가 바로 예술작품이기때문이다.

평범한 이웃집사람의 생활감정으로부터 어머니의 손목잡고 코노래 부르는 아이의 심리에 이르기까지, 협동벌농민의 땀에 젖은 모습이며 전호가의 병사가 틀어쥔 총가목의 따스함에 이르기까지 예술가가 몰라도 되는 사람, 찾지 않아도 되는 초소, 스쳐보내도 되는 일이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바로 거기에서 예술가는 자기 창작의 풍부한 토양을 발견하게 되며 그속에서 아름다운 서정의 꽃을 가꾸어 활짝 피우게 되는것이다.

안정호작곡가가 창작한 노래들이 사람들속에서 매우 친근하게 불리워지고있는것은 바로 그자신이 예술가이면서도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인민속의 한사람, 인민의 생각과 마음을 쉬임없이 누비는 성실한 체험자였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그의 작품들에서는 음악창작에서 인민성의 중요한 요소로 되는 통속성과 예술적일반화가 훌륭히 안받침되고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작품들에는 리해하기 까다롭거나 부르기 힘든 노래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의 창작생활의 전반기라고도 할수 있는 1990년대에 창작한 가요들만 꼽아보아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가요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 《나의 소원》,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조선의 행운》, 《해돋이순간》…

어느 노래라 할것없이 그리고 누구라 할것없이 사랑하고 흥얼흥얼 때없이 혼자 부르기도 하는 노래들이다.

음악작품이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흥얼흥얼 노래하는것으로 되였다는것은 작품의 서정세계가 인민의 사상정서적지향과 일치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것은 곧 창작가의 의도와 미학세계가 인민의 넋과 심장속에 접수되였다는것이며 노래자체가 그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지배하는 열정과 향기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창작가는 이렇게 인민의 사상정신적령역에서 당의 사상과 정책을 또 한번 새로운 감흥과 깊은 사색의 결정체로 자리잡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인민을 우리 당과 뜻과 숨결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대오로,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정서적으로 통일된 혼연일체의 대오로 이끌어가는데서 예술가가 수행하는 특출한 역할이 있으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예술가의 영원한 복무가 있는것이다.

작곡가의 얼굴은 알고있은 사람보다 몰랐던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이미전에 그는 자기의 진짜모습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다. 자기 넋과 량심의 총화인 창작품으로써 예술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민들과 함께 있었던것이다.

물론 그것은 고정된 초상이 아니였다. 때로는 가요 《정일봉의 우뢰소리》와 같이 천하를 떨치는 백두령장의 강인담대한 기상이 맥맥히 굽이치는 노래의 형상으로, 《나의 선생님》, 《예쁜이》와 같은 서정이 깊고 사색적이면서도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에 대한 열렬한 옹호와 례찬의 감정을 뚜렷한 양상으로 보여준 작품들로도 안겨왔으며 《비행사의 노래》, 《땅크병의 노래》와 같이 적진을 향해 번개같이 돌진하는 무적강군의 위용이 숭고하고 영웅적인 정신세계와 함께 펼쳐지는 군가의 울림으로도 전해지였다.

가요 《대홍단삼천리》와 같은 작품은 안정호작곡가의 비반복적이며 쉬임없이 발전하는 창작적개성과 진취적인 창작태도의 일면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그의 작품목록을 보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안정호작곡가는 민요풍의 노래를 창작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당이 바라고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적형식의 음악작품을 반드시 창작해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는 작곡가로 하여금 생소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기어이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펼쳐진 풍요한 대지, 복받은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이 청신하면서도 우아한 민족적정서속에 안겨오는 작품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훌륭히 펼쳐보여주었다. 작품은 나오자마자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과 찬탄을 자아내며 널리 불리워졌다.

왕성한 창작적열정 또한 안정호작곡가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기질적측면의 하나이다. 2010년 한해동안에만도 그는 무려 18편의 작품을 그것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였다.

가요 《곧바로》, 《공격전이다》, 《매혹과 흠모》, 《변이 나는 내 나라》, 《비날론 삼천리》, 《송년의 밤이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종소리》, 《타오르라 우등불아》,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우리 집사람》, 《인민사랑의 노래》…

강성국가건설의 최전방에서 한몸이 그대로 대오앞에 휘날리는 붉은기가 되시여 초강도강행군의 전설적영웅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며 작곡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와 력사에 대한 음악적기록을 자기의 더운 피와 진한 땀으로 아름답게 새기였다.

이렇듯 창작은 그에게 있어서 고요한 책상머리나 피아노건반우에서 진행하는 나름대로의 착상과 환상의 련결이 아니라 들끓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벌리는 불꽃튀는 투쟁이였고 혁명사업이였다.

오늘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이 환희로운 시대에 그의 창작세계는 나날이 더욱 멋들어지게, 더욱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다. 가요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우리 어버이》, 《인민의 환희》와 같이 최근에 그가 작곡한 작품들은 우리 조국이 맞이하고 누리는 모든 승리와 번영의 원인과 결과, 그 합법칙적과정을 생기와 활력, 감격과 긍지에 넘친 서정적울림으로 훌륭히 펼쳐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연무대들마다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의 흐름속에서 높이 울리고있다.

이 모든 성과를 어찌 타고난 창작적재능의 산물이라고만 말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어떤 요인들에 앞서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하늘처럼 받드는 우리 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열렬한 충정의 표시이며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과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량심의 결정체이다. 침체와 답보를 모르며 언제나 새로와지고 끝없이 앙양되는 창작적자세와 열정이야말로 작곡가를 인민의 예술가로, 영웅으로 성장할수 있게 한 개성중의 개성이다.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작곡가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써 당에 충직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예술가란 어떤 사람들인가, 혁명위업에 대한 참다운 복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준 우리 시대의 훌륭한 인간들이다. 이들이 이룩한 창작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창조의 경험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건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페막

지난 4월 10일에 개막되였던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페막되였다.

이번 전시회는 주체적산업미술발전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척후대로서의 산업미술의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성, 중앙기관, 각지 산업미술부문의 수많은 일군들과 창작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페막식이 13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각지 산업미술부문 창작가, 교원, 학생들, 애호가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 함경북도 산업미술창작사 등 중앙과 지방의 여러 단위들과 개별적대상들에게 해당한 증서와 메달이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색있고 가치있는 각종 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산업미술창작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만발하는 꽃송이들

평안북도 룡천육아원을 찾아서

아이들은 조국의 밝은 미래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이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조국의 희망찬 래일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많은 꽃송이들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평안북도 룡천육아원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룡천육아원은 읍에서 얼마쯤 떨어진 야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외장재를 바른 산뜻한 건물들과 그것을 감싸안고 푸른 숲을 펼친 야산, 마당에 꾸려져있는 아담한 놀이터…

겉모습도 눈길을 끌었지만 육아원안에 들어서니 동심과 기호에 맞게 아담하면서도 특색있게 꾸려져있어 마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였다.

《우리 육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원아들을 보고는 영양상태가 좋다고 한결같이 말한답니다.》

원아들자랑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원장 최순복동무는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오는 어느 한 방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하나같이 키도 크고 볼이 오동오동한 원아들이 보육원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당실당실 춤을 추고있었다.

어느새 노래가 끝나자 원아들이 《엄마!》 하며 달려와 보육원들의 품에 안겨들었다.

순간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그 말씀이 되새겨지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우리는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원아들이 보육원들을 가리켜 《엄마》라고 부른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인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젖먹이어린이들과 또 장난이 세차고 뛰여놀기를 좋아하는 3~4살잡이의 아이들을 돌본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아주신 꿈같은 소식과 보육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은 이곳 보육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자!

보육원들모두가 원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썼다. 책임의사 강금화, 책임보육원 김성심, 보육원 선우영신, 김승희동무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먹이는 문제, 지능놀이, 체력단련 등 원아들의 건강관리와 보육교양사업에 자신들의 정력을 다 바쳤다.

군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도안의 수많은 근로자들도 원아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다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젖먹이어린이들이 있는 방으로부터 식당, 창고, 목욕탕을 비롯하여 육아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돌아볼수록 원아들에게 친부모도 주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가슴후더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원아들이 입고있는 고운 옷이며 그들이 매일같이 먹고있는 맛있는 물고기와 사탕, 과자, 빵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

얼마전 명절날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색동옷을 입고나선 원아들을 보고 군안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는 원장의 두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원아들의 밝은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울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육아원을 나서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친근한 어버이의 품에 안긴 복받은 아이들아, 더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여라!

조향미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낭골로 음붐바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인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유서깊은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총비서는 감상록에 우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들께 경의를 드린다, 나미비아혁명가들은 조선의 모든 투사들과 후대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조선혁명은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글을 남기였다.

손님들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당창건사적관,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등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 녀자결승경기 진행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 녀자경기들이 전부 결속되였다.

두개 조로 나뉘여 진행된 련맹전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4.25팀과 소백수팀사이의 축구 1급 2차 녀자결승경기가 13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국내의 최우수팀을 결정하는 마당에까지 진출한 량팀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경기를 잘 운영하였다.

능란한 공다루기와 빼몰기, 불의적인 역습, 대담한 중장거리차넣기 등이 펼쳐지며 아슬아슬한 득점기회들이 련이어 마련되였다.

소백수팀의 10번선수가 전반전 10분경 문전앞 혼전속에서 먼저 한꼴을 기록하였으며 38분경 4.25팀의 문지기가 쳐낸 공을 26번선수가 또다시 득점하였다.

후반전에서는 4.25팀의 12번선수가 통쾌한 중장거리차넣기와 벌차기를 성공시킴으로써 경기는 2:2로 비긴 가운데 연장전을 하였다.

연장전 전반시간과 후반시간에 소백수팀과 4.25팀에서 각각 한꼴씩 넣어 경기는 11m승부차기에 들어갔다.

결국 4.25팀이 소백수팀을 7:5로 이겼다.

결승경기에 앞서 봉화산팀과 만경봉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전반전에서 만경봉팀에 한꼴을 먼저 실점당한 상태에서도 봉화산팀은 신심을 잃지 않고 맹공격을 들이대여 두꼴을 성공시켰다.

후반전에 들어와 량팀에서 각각 한꼴씩 득점하여 결국 경기에서는 봉화산팀이 만경봉팀을 3:2로 이겼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녀자경기에서는 4.25팀이 종합 1위를 쟁취하였으며 소백수팀과 만경봉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갔던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였던 채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괴뢰패당은 멍텅구리의 입덕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12일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 멍텅구리가 주제넘게도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감히 모독하는 미친 소리를 줴쳐댔다.

해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더지처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통으로 게바라나와 더러운 주둥이를 우물거리며 내뱉은 소리가 너무 허망하여 듣는 사람들이 귀가 더럽혀질 지경이다.

명색이 그래도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놈이 그 무슨 정례기자회견이라는데 나타나 제놈들이 조작해낸 《북무인기사건》을 두고 또다시 횡설수설하다 못해 《계속 거짓말하는 력사퇴행적인 나라》,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면서 이 세상 가장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존엄높은 우리의 신성한 국가주권까지 걸고들었는데 지금 내외가 김민석놈의 어처구니없는 정신착란적개나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얼마나 히스테리적망발을 내뱉았으면 우리에 대한 시비질에 이골이 난 괴뢰보수언론들까지 《사석에서나 할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공식기자회견에서 했는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양치기소년의 오유〉에 빠진것 같다.》,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정신나간 발언》이라고 하며 즉시에 비난해나섰겠는가.

괴뢰패당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지절댔지만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를 줴치기는 처음이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대변인이라고 나서는 놈치고 변변한자 없어 외국행각에 따라나가 성추행을 하여 개망신을 하는가 하면 거짓과 기만을 일삼으며 철면피하게 놀아대여 비난조소의 대상으로 되기 일쑤이지만 특히 김민석놈이 말질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야말로 미물보다도 못한 버벌치같은 놈이다.

사실 미국의 제일 더러운 곳만 핥는 식민지노복중에서도 특등노복이 괴뢰국방부이다.

자기의 군통수권조차 가지지 못하고 수십년을 미국의 졸개로 살아온것도 모자라 상전이 넘겨주겠다는 《작전지휘권》마저 안받겠다고 앙탈질하며 막대한 돈을 섬겨바쳐서라도 그 사타구니에 더 바싹 들어붙어있어야만 마음놓는 미국의 고용군이 바로 괴뢰군이다.

이 지구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렇게 가련한 허재비군대는 없으며 그런 오합지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다.

그 주제에 낯뜨거운줄도 모르고 《국방부》 대변인이랍시고 기자들을 불러대여 말도 되지 않는 험담질을 마구 해대고있으니 과연 한방망이 얻어맞지 못해 몸살난 놈이 분명하다.

박근혜같은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대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김민석놈의 이번 악담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으로 닥쳐드는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허둥대는 박근혜패당의 몰골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전대미문의 려객선침몰참사 등으로 헤여날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청와대》로 무섭게 육박하는 민심의 분노를 피해보기 위해 《4월핵시험설》, 《북무인기》광대극을 련속 연출하였지만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고 6월초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도 대참패는 불보듯 뻔한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통해 과시된 우리의 군사적위력앞에,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결정체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가장 혼비백산해있는것이 미국의 전쟁머슴군, 반인민적악정의 장본인인 박근혜패당이다.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박근혜와 그 졸개들이 사면초가의 신세에서 벗어나보려고 미친개마냥 짖어대며 우리를 걸고들어 기어코 전쟁이라도 일으켜볼 심산인것 같은데 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광란이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깡패두목 미국이 그처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치마두른 촌계집이 지휘하는 핫바지무리들이 감히 돌을 던지려 하는것이야말로 세상 웃기는 일이다.

괴뢰국방부가 북에서 《큰 한방》을 준비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계속 나불거리고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핵몽둥이찜질을 부르는 얼간이들이다.

김민석놈이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나발질하였지만 민심의 저주속에 지옥으로 침몰하는 남조선의 초상집살풍경과 위대한 인민사랑정치, 후대사랑정치로 온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리상향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모습을 대조해볼 때 과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나라》가 어디이며 없어져야 할 《정권》은 누구인가 하는것이 명백하다.

김민석과 같은 팔삭둥이의 입질이 초래할 불벼락으로 없어지게 될것이야말로 남조선의 《청와대》이고 식민지체제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련일 저지르고있는 괴뢰역적패당과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아있을뿐이다.

남녘의 민심도 온 남조선땅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놓은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비애와 원성에는 아랑곳없이 북남대결의 극대화로 더 큰 재앙을 몰아오고있는 박근혜년과 그 졸개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리라고 절규하고있다.

박근혜는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삿대질을 해댄 김민석놈과 그 조종자들을 이제라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괴뢰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수 없게 될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5월 13일
평 양

핵전쟁머슴군의 어리석은 광기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외세의존병환자, 동족대결광신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얼마전 미국에 건너간 이자는 공개토론을 한다, 초청연설을 한다 하고 분주히 돌아치면서 북의 핵무기보유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떠들었다. 역도는 북이 핵시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느니, 《이전과 다른 형태의 강력한 제재》니, 《가장 값비싼 대가》니 하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기도 했다.

원래 윤병세가 미국을 비롯한 외세에게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하는데 정신빠져 날뛰는 반역아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가 이번에 외세앞에서 또다시 우리를 걸고드는 대결망발을 늘어놓은것도 놀랄것은 없다. 하지만 역도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긴장》이니, 《불안정성》이니 하며 터무니없이 시비질하고 지어 《강력한 제재》니 뭐니 하며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강화를 선동한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우리의 핵보유를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것으로 헐뜯은것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궤변을 앵무새처럼 따라외운 가소로운 망동이다. 도대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조성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올해만 놓고보아도 우리는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적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핵재난을 막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호상 취해나갈데 대하여 남조선당국에 여러차례 제안하였고 주동적으로 선의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의 평화애호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북침핵전쟁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놓았으며 《쌍룡》, 《맥스 썬더》와 같은 도발적인 불장난들을 이중삼중으로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적대세력의 이런 무분별한 핵전쟁도발기도를 단호히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준것이 바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다. 현실은 우리의 핵억제력이 평화의 방패임을 명백하게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병세역도가 도리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든것은 동족적대감과 외세의존광증으로 온전한 판별력을 상실한 미국의 식민지주구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괴뢰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핵보유를 걸고들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미국의 날로 엄중해지는 핵공갈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기가 극도에 달한 엄연한 현실앞에서 제 할바는 하지 않고 외세에 아부추종하며 동족을 미친듯이 헐뜯는 윤병세같은 반역패당에게 도대체 조선사람의 피가 단 한방울이라도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윤병세가 아무리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해도 미국을 등에 업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악하는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이번에 윤병세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니, 《가장 값비싼 대가》니 하고 악청을 돋군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는 박근혜패당의 흉계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날로 엄혹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군사력을 더욱 백방으로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에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포함한 자위적조치로 대응해나갈 립장을 표명한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 권리가 없다.

괴뢰들이 외세와의 반공화국제재소동으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윤병세역도의 망발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소와 치솟는 분노만을 자아낼뿐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자주권수호를 위한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다.

괴뢰들은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대결에 매달릴수록 그것이 도리여 저들의 비참한 파멸만을 불러오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은 정 철

대참사를 빚어낸 반역패당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것이다

《행동하자. 잘못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남조선의 각계층 군중 2만여명 초불투쟁 전개, 재미동포들 미국의 38개 도시에서 시위 전개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0일 경기도 안산의 문화광장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2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침몰사고로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집회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찾는 유가족들의 통곡소리로 가득찼다.

한 유가족이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였던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아들을 구원하지 못한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라, 위급한 순간에 움직이지 않은자들을 바다에 빠뜨려버리고싶다고 절규하는 그의 편지가 랑독되자 참가자들은 괴뢰당국의 비인간적처사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였다.

한 녀학생의 아버지는 《세월》호에 탔던 딸의 전화를 받고 무조건 갑판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그가 살수 있었다고 하면서 생존자들은 구조가 아니라 탈출때문에 살아난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가 자연때문에 초래된 재앙이였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이번의 사고는 배의 불안한 출발, 능히 구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되도록 그냥 내버려둔것, 선원들만의 탈출, 잘못된 초기대응, 민간잠수부의 접근통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밝혔다.

사고당일에도 해양경찰 수사관이 《세월》호 선장을 자기 집에서 재우는 등 비상식적인 문제가 제기되였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포함한 모든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당국이 추모집회에 나선 청소년들이 돈을 받고 동원되였다느니, 《종북세력》이니 하고 윤운하고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악마같은 소리를 하는가고 단죄하였다.

지방선거니 뭐니 하는 정치놀음때문에 《세월》호참사를 잊어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권한과 절차를 따지며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 참혹한 현장을 앞에 두고 기념촬영을 하겠다고 하고 《좌파》타령을 하는 《정부》와 여당, 관료배들에 민중은 분노로 맞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자. 행동하자. 잘못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추모분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에서는 《세월》호침몰사고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련대의 공동행동선언이 발표되였다.

단체는 선언을 통해 민중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유가족들과 생존자지원을 위한 법제정, 책임자처벌 등을 위한 거대한 초불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 *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10일 미국의 워싱톤, 뉴욕, 로스안젤스를 비롯한 38개 도시에서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는 재미동포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정권》에 있다고 하면서 해외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진보세력들속에서 《세월》호참사보다 더 큰 비극이 초래될것이다, 하루빨리 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세월》호와 함께 박근혜《정권》도 침몰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이 희생자들을 추모, 괴뢰당국의 반인권적행위 규탄

남조선 《CBS》, 《KBS》방송에 의하면 10일 남조선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안산지역 각계층 시민들과 학생 1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9일 안산지역 24개 고등학교학생 2 000여명은 초불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침몰사고로 숨진 학생들을 추모하였다.

안산고등학교회장단련합 학생 200여명도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대형사고를 초래한 장본인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서울에서도 《세월》호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와 초불투쟁이 있었다. 그리스도교, 카톨릭교, 불교 등 5대종단시국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진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는 당국을 단죄하였다.

* *

남조선의 청년련대가 9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추모분위기를 가로막는 괴뢰당국의 반인권적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피해자유가족들과 민중이 무능한 《정부》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서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경찰들을 내몰아 유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는 시민들이 추모복장을 하였다는 리유로 저지시키고 청년학생으로 보이면 무조건 앞길을 막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는 이번 참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반인권적태도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청년들이 유가족들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전지역에서 초불을 들고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소름끼치는 지옥

지난 4월 중순 남조선의 진도앞바다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려객선침몰사고로 무참히 죽었다. 이 대참사로 온 남녘땅이 수라장이 되고 통곡과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초상난 집으로 되였다.

이번 참사는 근로인민들의 생지옥인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의 축도이다. 그것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부패무능한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치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어린 생명들의 애타는 구원요청마저 외면해버린 이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제 하나의 향락과 집권유지에만 미쳐돌아가는 박근혜패당의 부패무능과 무책임한 립장, 그에 의해 날로 썩고 병들어가는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무참히 짓밟는 반역패당의 악정의 후과가 어디 이뿐인가. 몇가지 자료만 놓고보자.

지금 남조선에서는 철없는 아이들의 절대다수가 벌써부터 《마음의 악성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려 신음하고있으며 그로 인한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런가 하면 30대, 40대 녀성들이 더는 살길이 없어 꽃같은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아빠트에서 뛰여내려 목숨을 끊고있다. 더우기 비극적인것은 어린 자식들이 영문도 모른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있는것이다.

《입양》의 너울을 쓴 어린이매매실태는 또 얼마나 험악한가. 괴뢰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밑에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갓난아이의 남녀별, 피형, 외모 등의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까지 제정해놓고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팔아먹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8년간 괴뢰들이 해외에 팔아먹은 어린이들은 근 1만 2 000명에 달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랍치와 성범죄도 끊기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하루평균 2건이상,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어린이실종자수만 해도 6만 7 000여명에 달한다. 실종자부모들이 자식을 찾기 위해 《실종가족찾기》방송에도 출연하는가 하면 각지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눈물겨운 참상들이 펼쳐지고있다.

박근혜패당이 학교폭력, 가정폭력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말뿐이였고 어린이들은 여전히 사회적보호를 받지 못하여 매일과 같이 불안과 공포속에 잠겨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현상은 명색이 《어린이집》(1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는데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철없는 어린이들이 보챈다고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 바깥에서 벌세우거나 우는 갓난아이의 입에 더러운 수건을 물리고 보관기일이 지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행위들이 끊기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에도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육아원에서 학대와 감금, 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사실이 폭로되였다. 이곳에서는 원장이라는자가 규률을 세운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시켜 길이 40~50㎝짜리 몽둥이와 각목으로 아이들을 때리게 하고 억지로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한 행위를 밥먹듯 하고있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국민행복시대》에서 아이들의 행복은 그 말조차 빠져있다고 개탄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에서 《잊혀진 희망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청소년들의 울분에 찬 글들이 인터네트에 차넘치고있겠는가.

일이 이쯤되면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원한의 절규, 분노의 함성—《이런 〈정부〉 필요없다!》

남조선사회를 삽시에 악몽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은 《세월》호참사는 누가 보아도 반인민적악정이 낳은 인재이다. 여기의 사진들은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바다속에 잠겨드는 선체의 창문에 희미하게 비쳐진것은 실날같은 삶의 희망을 부여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내뻗친 아이들의 고사리같은 손들이다.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불꽃인듯 희부옇게 안겨오는 그 사진에서 구원을 부르는 목갈린 애원이 눈물겹게 들려오는듯싶다.

제때에 달려가 그 연약한 손들을 붙잡았어도 불쌍한 어린것들을 얼마든지 건질수 있었으련만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가 뒤집힌 후에야 꾸역꾸역 몰려드는 구명정에 허겁지겁 쓸어오르는것은 배도, 애처로운 어린 승객들도 인간의 륜리와 함께 차거운 바다속에 깡그리 줴버린 《세월》호의 철면피한 선원들이다.

제 한목숨이 두려워 아이들의 피터지는 구호요청을 외면하고 배전을 빙빙 돌기만 하는 무능한 구조대,

결국 수백의 꽃망울들은 어이없이 한꺼번에 물고기밥이 되고말았다.

숨이 끊어진 자식들의 시체를 받아안은 피해자가족들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

싸늘한 시신을 앞에 두고 가슴터지는 원한을 풀길 없어 피절은 통곡끝에 기절하고만 부모들, 먼저 간 자식들을 애타게 부르며 잘못 만난 세상을 저주하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는 부모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처절한 곡성은 하늘에 닿건만 당국자들은 남의 죽음이 내 고뿔만 하겠느냐는 격으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세월》호의 참사는 바로 이런 희세의 패륜아들이 빚어낸 인재이다.

자식들을 부르는 피타는 절규에는 귀를 틀어막고 사망자명단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날치며 피해자가족들의 상처입은 가슴에 칼질한 망나니들, 천하의 불망종들때문에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는 몸서리치는 참사가 일어난것이다.

분노한 웨침이 온 남녘땅을 뒤흔든다.

《더이상 놔둘수 없다.》, 《이런 〈정부〉 필요없다!》 그렇다.

남조선인민들이 피눈물나는 불행을 끝장내자면 썩어빠진 패륜아무리, 극악한 살인마집단인 괴뢰반역통치배들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본사기자

미국은 현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요즘도 터무니없는 《도발》과 《위협》타령으로 피대를 돋구고있다.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북조선이 자제력을 발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느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혼시절반, 타협절반의 소리를 해대고 있다.

국제회의마당에서는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여야 한다며 그 무슨 《의무리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있다. 이것이 우리의 초강경립장발표에 급해맞은 오바마패거리들이 고안해낸 또 하나의 기만술책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제의 광란적인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핵억제력강화를 위한 핵시험 등에 대해 예고한것은 지난 3월 30일이다. 세계는 새로운 핵시험과 로케트발사가 미증유의 련쇄적인 《증폭핵분렬탄시험》으로 될것이다, 미본토종심까지 타격할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싸일의 《고속화진입》으로 될것이다라는 견해와 억측들을 내놓고 있다.

죄많은자 겁부터 앞선다고 지금 미국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도그럴것이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양키식기준을 자대로 우리를 함부로 《도발자》로, 《위험대상》으로 지목해놓고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제재》와 《고립봉쇄》책동도, 우리 민족과 우리 강토를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불장난도, 모략적인 《인권》소동도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반면에 나날이 미국을 엄습하는것은 좌절감과 함께 공포뿐이다. 미집권자가 청와대안방주인과 마주앉아 북조선은 추가핵시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북조선의 핵무기가 세계를 통채로 뒤흔들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친것은 우연하지 않다.

원래 가장 파렴치한 도발과 침략의 원흉인 미국은 남을 꺼꾸로 매도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행세하는 강도의 무리들이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그칠 사이없이 벌리고있는 미국이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 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규탄》하는 억지공사를 벌려놓은것은 그것을 립증하는 단적실례이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신성한 제 나라, 제 강토를 수호하려는 정당방위는 《도발》과 《위협》으로 되고 머나먼 남의 나라 땅에 밀려들어와 전쟁란동을 부리는 날강도적행위는 의로운것이라고 우겨대는 미국의 흑백전도의 기질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우리를 거론하여 입에 올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그 무슨 《의무리행》이라는것도 마찬가지이다.

1978년에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지난시기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결한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는가. 미국은 우리를 고립압살하는데 그것을 악용하였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핵선제공격대상자명단에 올려놓고 핵위협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전쟁을 방지하고 자기 제도, 자기 운명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수 없게 떠밀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인들자체가 인정하고있다.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는 《부쉬행정부가 집권후 북조선과 직접 대상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핵악몽이 일어나게 했다.》고 공개비난해나섰다. 미국의 국제정치문제연구소 기관지 《포린 폴리씨 포커스》는 《부쉬는 집권초기부터 북조선을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거칠게 대해옴으로써 결국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폭로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민 미국은 이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미국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채 우리의 《도발행위자제》니, 그 무슨 《의무리행》이니 뭐니 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여 군사적대응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호전분자》감투를 씌우고 저들의 군사적책동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은 지역나라들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나라와 민족의 안전에 관한 근본문제에서 한치라도 양보할 우리가 아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미당국자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행동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대화도 있고 미북관계개선도 있다.》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아직도 상대를 모르고 헤덤비는자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명백백하다.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핵을 가지지 않았다. 허리띠를 조이며 다져온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되여 써먹을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청산될 때까지 유지하고 더욱 확대강화시켜야 할 자위적억제력이며 미국의 저주로운 핵몽둥이를 꺾어버리고 공정한 세계질서를 구축해야 할 정의의 보검이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을 숨길것도 에두를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다종화된 핵타격수단의 주되는 파녁이 미국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북침핵시험전쟁인 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핵 및 미싸일시험도 계속 진행될것이다.

미국이 지난 세기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처럼, 새 세기에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가로타고앉은 수법대로 우리에 대한 도발을 일삼다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타격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 하는것은 영원히 성사될수 없는 망상이다.

이제라도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사태를 랭정하게 판단하고 대세에 부합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낡아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인 새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본토의 안전을 담보하는데도 유익할것이다.

배 금 희

선군조선의 승리의 보검

여러 나라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은 미제와 직접 맞서싸우는 혁명적무장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조국해방후 그를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전군에 혁명적동지애가 차넘치는 강군으로, 일당백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그 위용을 떨쳐왔다.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가 튼튼히 수립되여 조선인민군은 주체전법을 갖춘 혁명무력으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자라났다.

조선인민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에게 대참패를 안기였으며 전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에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았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비상히 강화되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강위력한 무장장비와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갖추었다.

조선인민군은 2010년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연평도에서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였다.

참으로 선군혁명의 전위대인 조선인민군의 82년투쟁사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백승을 떨쳐온 빛나는 력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길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총대우에 세계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은 올해의 건군절을 긍지높이 경축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에 의하여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였다.

해방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된 백두산혁명무력은 빛나는 승리를 떨쳐왔다.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무적필승의 령장 김일성대원수의 천재적인 지략에 의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한 혁명적무장력은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이 력사적기적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능히 쳐부실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승리는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미제를 타승하신 김일성주석을 걸출한 위인으로 가장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김정일대원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되였다.

자위적핵억제력을 가진 조선인민군은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있다.

김정은원수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미제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있다. 강한 전투력을 지닌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보검이며 필승불패의 강철의 방패이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규탄

조선반도의 정세악화의 장본인

세계직업련맹과 꾸바근로자중앙, 인디아로조중앙, 브라질근로자중앙을 비롯한 뉴질랜드, 에스빠냐, 뽀르뚜갈, 져메이커, 아르헨띠나, 미국의 로조단체들이 2일 공동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련대성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올해에 들어와 북과 남사이에 서로 비방중상을 그만두고 적대적군사행위를 전면중지하며 핵재난을 막기 위한 주동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날로 무모해지는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대규모《쌍룡》련합상륙훈련이 강행된데 이어 남조선의 전지역상공을 작전무대로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중타격을 노린 력대 최대규모의 《맥스 썬더》공중전쟁연습이 벌어졌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이 《북의 전투기와 주요거점들에 대한 타격을 가상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니 뭐니 하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이번 훈련은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철두철미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으로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제재》와 군사적압력으로 주권국가의 권리를 빼앗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엄중해지는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계속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의있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받아들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르는 모든 조치들을 즉시 철회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근로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 *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4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된 국제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은 외세에 의하여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분렬의 고통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서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군사적위협과 긴장이 의연히 지속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룩하며 평화와 민족번영을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중대제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현실을 랭정하게 판단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조선에 일방적인 선핵포기를 강요하는 어리석은짓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의 핵억제력이 대화나 관계개선에 목이 메여 내댈 흥정물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세기에 전쟁을 통하여 많은 리득을 본 미국은 오늘도 리해관계가 있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분쟁과 무장충돌을 일으키는 등 무분별한 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은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해마다 세계인권상황을 불공정하게 평가하고있다.

미국의 인권소동의 주요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은 위대한 사상과 강대한 군사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있으며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조선의 당과 인민의 위대한 투쟁의 결실이며 나라의 실정과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발전하는 사회주의이다. 강한 정신력과 불패의 힘을 지닌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사상과 제도, 인민에 의하여 담보되는 조선의 자주권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야 한다.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정책적결단을 내리는것이야말로 미국의 리익에도 맞는 선택으로 될것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민주녀성련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제민주녀성련맹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반인권적범죄를 사죄하라

빼루정당, 단체들이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미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대범죄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빼루민족독립운동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빼루위원회는 8일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백수십년동안 침략과 략탈, 살인 등 온갖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반인륜적대범죄의 원흉이다. 미국은 조선만이 아닌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전쟁과 인권유린의 참화를 들씌우고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문제시되지 않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온갖 재난의 본거지인 미국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빼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세기를 이어 감행되고있는 조선민족에 대한 반인권적범죄행위는 빼루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 역시 조선인민에게 감행하고있는 반인권적범죄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선민족에게 사죄하여야 하며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영구강점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셀레 오를레아누가 4월 29일 인터네트홈페지 《주체사상》에 《영구강점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아시아지역을 행각하면서 남조선영구강점을 위한 저들의 지배전략을 다시금 드러내놓은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 날로 장성강화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오늘도 변함이 없으며 위험한 단계에서 더욱 확대강화되고있음을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전략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적극 편승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군사적결탁강화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이 심사숙고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안전, 조국통일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제1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본격적인 싸이버전책동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싸이버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정부는 그 무슨 싸이버공격에 대처한다는 명목밑에 내각관방의 사령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인 《내각정보통신안전관》(가칭)을 새로 내올것을 결정하였다.

4일 《도꾜신붕》이 이에 대해 전하면서 정부가 2015년부터 이 결정을 실시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고 밝혔다.

제재로 손해볼것은 서방뿐이라고 언명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한 외교석상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로 손해볼것은 서방뿐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의 일방적인 반이란제재가 그들로 하여금 이란과 무역할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하면서 만일 서방이 계속 제재를 고집한다면 패배자로밖에 달리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이란인민의 응당한 권리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정부는 서방나라들이 아니라도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희망하는 나라들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구입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얼마전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시에서 폭탄테로사건이 발생하였다. 시의 남부철도역 개찰구에 갑자기 들이닥친 테로범들이 칼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동시에 미리 설치해놓은 폭탄을 터뜨렸다. 하여 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발생후 습근평주석은 즉시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는 지시에서 반폭력테로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폭력테로분자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구급치료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사건진상을 신속히 해명하며 폭도들을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안정과 통제사업을 잘하여 군중들의 생명재산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업 및 생활질서를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일어난 테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최근년간 테로가 여러차례 발생하였다.

지난 기간 중국당과 정부는 이 지역에서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지난 4월말 습근평주석은 우루무치를 비롯한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여러 지역을 시찰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농촌들과 군부대, 학교, 파출소, 이슬람교사원, 신강생산건설병단 등을 돌아보면서 신강의 경제 및 사회발전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시찰기간 습근평주석은 신강의 비약적발전을 확고히 실현하는 동시에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민심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에 놓고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신강의 사회적안정이 나라의 안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계된다고 하면서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수호하는것은 국가의 최고리익이며 신강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근본리익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습근평주석은 시찰기간 테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이 지구가 반테로의 최전선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장경찰들이 철저한 훈련으로 테로 등에 대비할것을 지시하였다.

신강주둔부대를 위문방문한 습근평주석은 반테로 및 안정수호사업을 실속있게 잘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보호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신강군구와 중국인민무장경찰의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소집하고 신강주둔부대들이 이룩한 성과와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보위하려는 부대관병들의 희생정신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는 회의에서 전투대오, 사업대오, 생산대오의 역할을 발휘하고 신강의 사회안정과 장기적인 치안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테로와의 투쟁을 강도높게 벌리고있는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김 수 진

외세의 간섭을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진강이 4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중국관련보고서에서 중국을 또다시 《특별관심국가》로 지정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공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중국인민은 법에 따라 충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원회가 다년간 발표한 보고서의 중국관련부분은 항상 거짓으로 가득차있다고 하면서 종교문제를 리용한 내정간섭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성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무장관의 내정간섭적인 망발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반정부세력과의 그 무슨 대화를 추진하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자기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락인하였다.

미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안정을 위한 베네수엘라의 노력을 방해하고 일부 극단주의그루빠들을 계속 폭력에로 사촉하는 행위라고 성명은 까밝혔다.

제 처지도 모르고 덤비는 테로왕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상모해와 내정간섭의 고질적인 악습을 또다시 드러냈다.

《2013년 테로보고서》라는것을 조작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을 터무니없이 걸고든것이다.

이번에 국무성이 발표한 테로보고서라는데서 미국은 어느어느 나라는 《테로지원국》이고 또 어느 나라는 《반테로》활동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야비야했다.

어제는 그 무슨 《인권보고서》라는것을 조작하여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헛나발을 불더니 오늘은 또 《테로보고서》라는 왕청같은 문서장을 꾸며낸것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그야말로 극도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천성으로 타고난 시비군의 주제넘은 행실이 아닐수 없다.

굳이 테로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은 입이 열개고 낯가죽이 곰발통일지라도 머리들고 할 소리가 없다.

국제사회는 그 언제 미국에 다른 나라들을 시비하고 훈계해도 된다는 권한을 준적이 없다.

그 아무리 체통이 비대해도 미국은 세계속의 일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는 크고작은 나라는 있어도 다른 나라에 대해 간섭하고 훈계할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라는 없으며 미국도 례외로 될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까지 가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온 테로의 원흉으로서 테로에 대해 운운할 자격과 명분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미국의 력사는 말그대로 략탈과 살륙, 무력간섭과 전복음모,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특대형 테로범죄의 력사이다.

국가형성과 《독립》의 피비린 자취를 봐도, 해외팽창을 위한 식민지쟁탈의 흉악한 기질을 봐도 미국이야말로 살륙과 파괴, 략탈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삼아온 범죄국가이다.

미국은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 국제반동의 원흉, 국가테로의 주범으로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르고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는 미제에 의하여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 없다.

1950년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꾸바에 대한 침략책동, 4천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도미니까에 대한 무장간섭과 웰남전쟁, 1970년대 칠레에서의 군사정변과 1980년대의 그레네이더, 빠나마침공, 1990년대의 만전쟁과 유고슬라비아전쟁 등으로 미국은 가장 야만적인 국가테로행위, 대학살만행들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테로광풍을 세차게 몰아왔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의 죄행에 대해 반성할 대신 아직까지도 그 무슨 《테로》를 운운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찾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적반하장격으로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모략과 압력을 일삼아도 거기에 굽어들 나라는 없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이 발표한 《2013년 테로보고서》라는것을 전면배격, 규탄하고있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나섰다.

이번에 미국은 중국이 반테로분야에서 저들과의 협조가 매우 적다는 주장을 내대면서 국내의 일부 테로사건들의 성격에 대한 중국측의 규정에 믿음성과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반테로문제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이중기준을 실시하는것은 국제반테로협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꾸바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꾸바를 《테로지원국가》로 지정한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꾸바를 대상으로 한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하였다.

응당한 비난이다.

미국무성이 《테로보고서》에서 꾸바가 테로단체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무장요원들을 훈련시켰다는 정보는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무작정 《테로지원국가》로 걸고든것은 테로문제를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압력의 구실로 삼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란의 반발도 강경하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미국무성의 보고서는 진실을 외곡하고 이중기준정책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을 테로지원국으로 비난하는것은 정치적성격을 띠며 진실을 외곡한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적주민들이 미국무인기들의 수많은 공격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미국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유태복고주의적인 범죄를 눈감아주고있다, 테로와 투쟁한다고 하는 미국의 발언들을 문제시해야 한다고 론박하였다.

모든 사실은 침략과 살륙,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의 범죄적정체는 이미 력사앞에 낱낱이 드러났으며 《인권》이요, 《테로》요 하면서 세계제패야망을 추구하는 미국의 책동이 더는 통할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미국은 자기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제 처지도 모르고 계속 남을 걸고들어야 자기 허물만 더 드러나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격분만을 야기시킬뿐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모내기를 하고있는 웰남인민들

새로운 조류독감비루스 발견

최근 남국의 펭긴새들속에서 새로운 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였다. 6일 국제조사그루빠가 밝힌데 의하면 수백마리의 펭긴새들의 피와 기타 물질들을 검사한 결과 H11N2형으로 알려진 새로운 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였다고 한다.

연구사들은 이 비루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조류독감비루스들과 차이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4107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